

에이치시티 3분기 매출액 165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

- ▶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468억 원, 영업이익 96억 원 달성
- ▶ 배터리 방폭 시험동 '그린에너지동' 준공,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할 것"

<2021-11-05>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허봉재)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1년 3분기 매출액 165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19.4%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68억 원, 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8%, 18.5% 했다.

2분기에 이어 점증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에이치시티 관계자는 전방산업 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험인증 사업 부문에서는 5G시장 확대에 따라 기지국, 중계기 제조사의 약진을 비롯,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기능 확대에 의한 전장품과 센서부품의 시험인증 수요 증가가 실적향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또한,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의 신기종 출시로 IT제품군 시험이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따르면 세계 교정시장이 2025년까지 연평균 6.94%의 성장을 예측하는 가운데 에이치시티 교정 사업 부문 또한 주요 거래처의 장비 투자 확대가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에이치시티는 지난 8월 국내 민영 시험소 최초 전기차 배터리 방폭 시험동인 '그린에너지동' 준공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중대형 배터리 시험인증사업 확대에 나섰다.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 배터리 시험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개발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는 "중대형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친환경 경영 트렌드로 주목 받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적합성과 성능시험 등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터리 시험 시장 선제 진출을 통한 실적성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